

三國時代 多條式 垂飾 樣式에 대한 研究

A Study on the Many Strings Pendants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김문자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 Col. of Human Ecology
Associate Professor : Kim, Moon-Ja

◀ 목 차 ▶

I. 序論	III. 結論
II. 多條式 垂飾 樣式의 分類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of the many strings Pendants in old tombs of Three Kingdom States.

Many strings Pendants was usually used for earrings, but scarcely used for crown and Yopae(腰佩). They were classified Sehwhan(細環) type that was formed of 2-4 string and Taewhan(太環) type that was formed of 2-3 string.

Sehwhan 2 string Pendants was found in most of the old tombs in Kokuryo, Pacjae, ancient Silla, Gaya. Sehwhan 3-4 string Pendants was excavated from the only ancient Silla tombs. Sehwhan 3 strings Pendants was transmitted to Japan.

Taewhan type that was formed of 2-3 string Pendants excavated from the only ancient Silla tombs.

I. 序論

三國時代 각종 多條式 垂飾 樣式은 보통 귀걸이 류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고분출토품에서 그 발견 예로 보아 冠帽의 垂飾이나 腰佩류 등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즉 古墳 發掘時 內棺의 被葬者 鈿帶 아래에 金제 태환식 수식이 여러 쌍 착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귀걸이형의 장신구가 반드시 귀걸이로서만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

분에도 착장한 장신구였음을 말해준다. 사실 신라고 분들에서는 귀걸이형 장신구는 被葬者 머리 위치에 서만이 아니라 大形古墳의 경우 木槨部 여기저기서 나오고 또 그 중에서는 主環 아래에 달린 장식 귀걸이로 보기에 너무 긴 것들도 있었다. 이러한 것을 모두 귀걸이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¹⁾.

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7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多條式 귀걸이가 아닌 多條式 垂飾으로만 분류하였다. 多條式 垂飾은 그 처음 매달리는 부위의 형태에 따라 細環式과 太環式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垂飾의 끝장식의 형태에 따라 心葉形이나 梔子形, 圓錐形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부분 2-4개의 垂飾이 매달리는 것이 보통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같은 多條式 垂飾의 樣式을 다시 세분하여 그 각각의 形態 및 特徵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多條式 垂飾類에 대해 지금까지의 고분출토품을 중심으로 加耶를 포함한 高句麗, 百濟, 古新羅 전지역을 포함하여 양식을 분류하고 考察하고자 한다. 다만 遺物量의 각 지역별 차이가 심해 거의 古新羅, 加耶地域 중심으로 연구한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高句麗地域 1점, 百濟地域 2점, 古新羅地域 13점, 加耶 地域 4점 등 총 20점의 遺品을 양식 분류하였는데, 크게 細環式과 太環式으로 나누고, 細環式은 다시 2條式, 3條式, 4條式으로, 太環式은 2條式, 3條式으로 모두 5가지로 樣式 分類를 하였다.

본 논문의 그림들은 多條式 垂飾의 성격상 垂飾들이 겹쳐지게 촬영되게 되어 일반 사진 圖板은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주로 實測圖를 위주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II. 多條式 垂飾 樣式의 分類

多條式 垂飾의 樣式 分類는 먼저 細環式과 太環式으로 나누고 다시 條의 수에 따라 2條式, 3條式, 4

樣式 地域	細環式			太環式		계
	2條式	3條式	4條式	2條式	3條式	
高句麗	1					1
百濟	2					2
古新羅	4	2	1	6	1	14
加耶	3					3
계	10	2	1	6	1	20

*숫자는 垂飾의 수

條式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나라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표와 같다.

1. 細環式 多條式 垂飾

1) 2條式

高句麗지역 평양시 대성구역 안악궁터부근 출토품(그림 1)은 세환에 작은 고리를 연결하고 그 아래 花籠形 장식을 달고 다시 2개의 작은 고리에 각각 금사슬을 달고 그 하나에는 끝에 고추모양 장식을 매달았다²⁾.

百濟지역 武寧王陵 出土 王妃의 垂飾(그림 2)은 세환에 두조의 垂飾部를 달았는데, 하나는 속이 빈 원통형의 중간 장식에 복엽형의 심엽형 장식을 매달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개의 세환으로 이루어진 구슬모양의 장식에 5개의 영락을 금사로 매단 것을 5개 연결하고 맨 끝에 2개의 영락이 달린 金帽似的 푸른색의 곡옥을 단 형태의 것이다. 심엽형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원통형은 縷金細工의 金線과 小金珠로 장식되어 있다. 길이는 8.3cm이다.

武寧王陵 出土 王妃의 垂飾은 세환에 작은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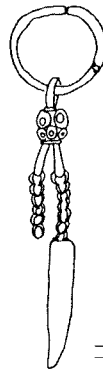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1> 細環式 2條式 垂飾

高句麗地域

평양시 대성구역 안악궁터부근 출토

-『고구려고고학 II』

<그림 2> 細環式 2條式 垂飾

百濟地域 武寧王陵 出土

-『古墳出土 副葬品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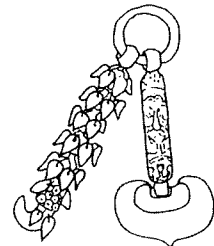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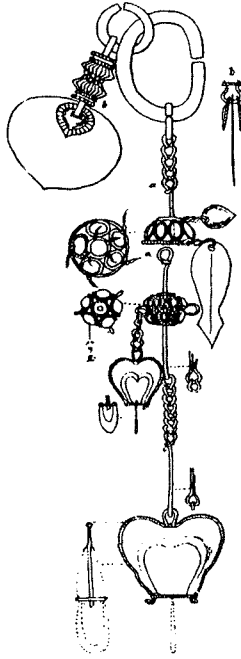


그림 2

2) 최무장, 『고구려고고학 II』 서울: 민음사, 1995, p. 886.



〈그림 3〉 細環式 2條式 垂飾
古新羅地域 慶州 金冠塚 出土
-「慶州金冠塚と其遺寶」-

를 연결하고 거기에 다시 2조의 수식을 매달았는데, 하나는 半透作球體가 맨 위에 달리고 그 밑에 金鎖로 연결된 4개의 葉形瓔珞, 그 밑에는 透作金帽가 씌워진 담녹색 유리구옥이 달렸으며, 그 아래 다시 4개의 葉形瓔珞이 2節로 되어 있고 맨 아래는 草實形이 垂下되어 있다. 葉形瓔珞과 초실형의 周緣에는 모두 縷金으로 윤곽이 둘러져 있다. 다른 한 조는 각 4개씩의 원형영락이 금사슬에 7節로 연결되었고 그 아래 8개의 원형영락이 있으며 맨 아래는 上部의 縷金을 장식하여 캡의 효과를 낸 錐形垂下飾이 달린 형태이다³⁾.

古新羅 경주 교동 출토 其1은 細環에 작은 고리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金鎖로 연결한 아주 간단한 양식의 心葉形을 매달고 있다. 또 하나는 길이가 13cm에 달하는데 금줄에 연결된 수십 개의 원형영락을 매달고 있으며 맨 끝에는 말안장과 같은 모양의 끝장식을 매달고 있다.

同 古墳 出土 其2는 細環에 작은 고리 두 개를 연결하고 하나는 金방울을 달고 그 밑에 다시 竹葉形 장식을 매달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긴 金鎖에 비슷한 간격으로 金방울 3개를 매달고 끝장식으로 三葉形을 매달고 있다 각각의 金방울에는 4개씩의 竹葉形 장식을 금줄로 연결하고 있다⁴⁾.

金冠塚 출토 垂飾〈그림 3〉은 中實扁圓形의 細環에 長短 2조의 수식을 늘어뜨리고 있다. 긴 쪽의 수식은 兵庫鎖에 針金 각 2조를 교차로 연결한 1개의 連條를 이루고, 그 하단에 寶冠形 垂飾을 매달고 있는데, 寶冠形은 薄板으로 만들었으며, 그 긴쪽 兩肩의 下方으로 縮約되어 내측은 빈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곳은 寶石 또는 木質같은 것으로 매꾸워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插入物을 지지하기 위해 寶冠形의 板은 空處의 緣을 매끄럽게 하고, 하단에는 蛇腹狀의 橢圓鑲을 附著하고 있다. 이 寶冠形 장식의 上方兵庫鎖의 부분에는 花籠形飾을 매달고, 거기에는 十箇의 淡青色의 琉璃玉을 嵌裝하고 그 三方으로 鎖를 垂下시켜 앞의 寶冠形 장식의 작은형을 각 그 끝에 매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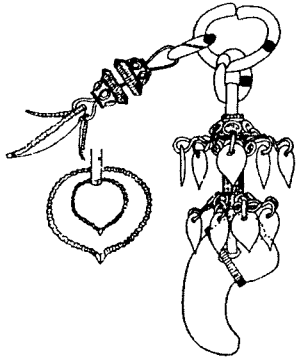
그 寶冠飾의 또 다른 하나에는 하단 蛇腹의 鑲의 아래에 마치 舌狀의 垂下物을 늘어뜨리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앞의 大寶冠形 장식에도 이같은 류의 垂下物이 늘어뜨려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花籠形飾의 上方緣條의 上端에는 가깝게 圓笠形의 장식이 附著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小心葉形의 飾片, 長劍菱狀의 飾片 각 4個 늘어뜨리고 있다. 긴 쪽의 垂飾은 이상과 같이 3段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비해 짧은 쪽은 단지 1個의 心葉形板을 늘어뜨린 간단한 양식이다⁵⁾.

이 心葉形 귀걸이의 中間飾은 주판알같이 생긴 것을 두 개 연결하였는데, 그 둘 사이에 작은 섬세한 透刻 장식을 한 원통형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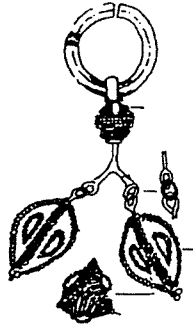
3)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 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公社, 1975, p. 149.

4) 국립경주박물관(편), 『국립경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6, p.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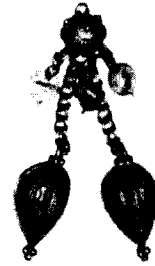
5)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T其遺寶」 『大正13年度古蹟調査特別報告』 第三冊, 1924, pp.93-95.



〈그림 4〉 細環式 2條式 垂飾
古新羅地域 慶州 金鈴塚 出土
- 『慶州金鈴塚 飾履塚發掘調
査報告』



〈그림 5〉 細環式 2條式 垂飾
加耶地域 昌寧 校洞 古墳群
出土
- 〈考古學雜誌〉第60卷 第4号



〈그림 6〉 細環式 2條式 垂飾
日本 古墳時代 三重縣
保子里古墳 出土
- 『世界考古學大系』3 日本

表形의 細金細工을 가한 心葉形의 수식은 앞뒤에 心葉形의 영락식을 매단 대표적인 複葉式의 心葉形 귀걸이 양식중의 하나이다.

金鈴塚 출토품(그림 4)은 세환에 두줄기의 수식을 단 것인데, 하나는 中空의 반구체를 돌로 맞붙인 중간식을 연결하고 그 밑에 한면이 內彎된 심엽형 장식을 垂下한 형태이다. 반구체의 표면은 小圓環과 '形'의 띠를 縷金裝飾하였고 心葉形 垂下飾의 周緣과 心葉形의 양측에 달린 小形圓形의 周緣에는 金細粒을 돌렸다. 다른 한줄기는 9개의 소형영락이 달린 透刻球體의 華籠形 장식밑에 8개의 영락이 달린 筒形 중간식을 연결하고, 하단에는 聯環으로 金帽가 씌워진 푸른 硬玉製 곡옥이 수하 되어 있다.

加耶地域 출토품중 昌寧 校洞 第31號 古墳에서 출토된 것(그림 5)은 길이가 8cm 정도 되는데 세환에 瓔珞形의 장식을 垂下시키고 있는데 球狀寶飾으로 시작하여 그 아래는 方形에 가까운 형태이다. 3개의 花瓣樣片을 늘어뜨리고, 또 별도의 方形部의 중심을 連鎖하고 그 아래 2개의 큰 山榭形 三面體의 장식을 垂下시키고 있다. 각면 중앙에는 심엽형류의 장식이 있고, 하단의 4개의 小珠를 부착하고 있다. 또한 최상부의 球形에는 가는 連珠狀의 橫帶가 있다. 다른 각부의 緣邊에도 裝飾粒 線의 細金細工이 가해져 있다⁶⁾.

또 다른 昌寧지역 출토품(出土 古墳 未詳, 梅原資料)은 세환에 球形장식을 달고 다시 두조를 연결해 끝장식으로 榭子形 垂下飾을 매달고 있는 것이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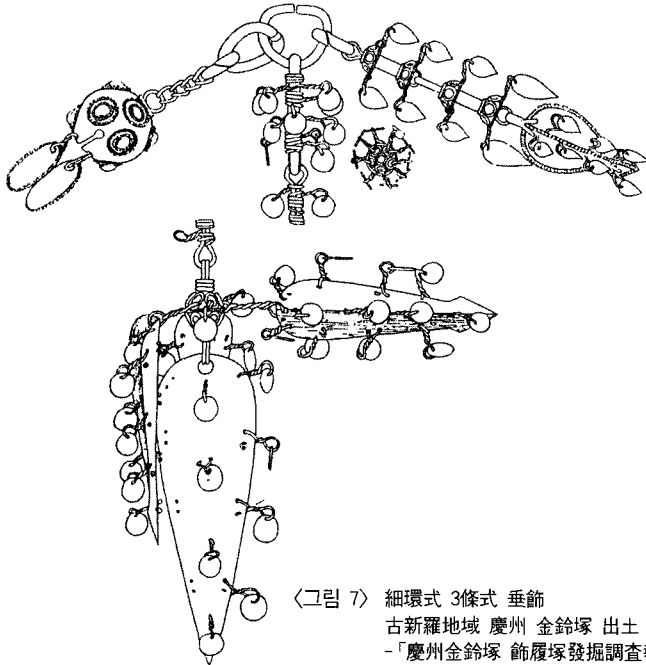
出土地 未詳의 다른 加耶地域 출토품에도 세환에 가는 고리를 연결하여 球形장식을 달고, 다시 두조의 金鎖를 이어서 각각의 끝에는 둘레에 金細粒을 加飾한 榭子形 수하식을 매달고 있는데 수하식의 맨 끝에는 좀더 굵은 크기의 金粒을 매달고 있다. 이같이 수하식의 끝에 1-3개의 金粒을 매다는 양식은 가야귀걸이 양식의 특징이라고 보⁸⁾ 있다.

이같은 두조의 다조식 수식의 양식도 당시 일본에 전해져, 일본 고분에서도 출토되고 있는데 三重縣 保子里고분 출토품(그림 6)은 母環에 瓔珞을 단 방울을 연결하고 방울에는 金の 針 針을 한 二條의 絲鎖形을 매달아 그 끝에 榭子形 垂飾을 달고 있다. 형태도 그렇지만 특히 가야 귀걸이 양식의 특징인 垂下飾 끝을 金粒으로 장식하는 양식도 서로 공통

6) 濱田耕作, 『慶尙北道慶尙南道古蹟調査報告』 『大正7年度古蹟調査報告』, 1912, p.50, 圖版第68.

7)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pp.364-65.

8) 金種徹, "가야의 고분과 문물",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동천문화사, 1992, p. 119.



〈그림 7〉 細環式 3條式 垂飾
古新羅地域 慶州 金鈴塚 出土
-「慶州金鈴塚 飾履塚發掘調査報告」



〈그림 8〉 細環式 3條式 垂飾
古新羅 出土地 未詳
-「韓國美術全集」2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같은 일본의 梔子形 수하식을 달은 다조식 수식도 우리 나라 가야지역의 양식이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加耶地域 東萊 連山洞 古분출토품은 세환에 작은 고리를 연결하고 다시 두조의 수하식을 매달고 있는데 하나는 3개의 球形장식을 위에 한 개 달고 두 줄의 金鎖로 연결한 후 각각의 끝에 다시 球形장식의 垂下飾을 매달고 있다. 다른 쪽은 金粒이 곳곳에 부착된 球形장식을 달고 다시 金鎖로 연결한 다음 맨 밑에 같은 모양의 球形裝飾을 垂下飾으로 매달고 있다.⁹⁾

2) 3條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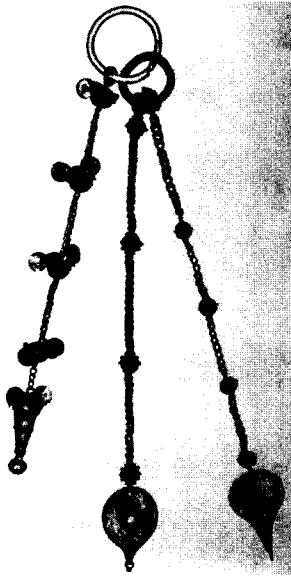
古新羅 金鈴塚 出土品(그림 7)은 세환에 長短의 3조의 垂飾을 매단 형태이다. 첫 번째는 中軸을 따라 긴 장식을 붙인 環에 다른 두조의 裝飾小環을 매달고 있는데 비해 다른 쪽은 별도의 環으로 나머지 두조의 수식을 연결한 점이 약간 차이를 보인다. 이 垂下飾의 하나는 2개의 小圓板飾을 매단 金鈴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이 金鈴은 둥근 표면에 작은 花形座에 琉璃粒을 장식하고 있고, 짧은 兵庫鎖에 의해 상부의 大소환과 연결되어 있다.

垂飾의 두 번째는 中實의 소환에 9개의 小心葉片을 착장한 花笠樣의 座飾을 상하에 배치하고 2조의 짧은 棒狀을 連繫한 위에 先端에 三羽를 가진 劍菱形的 垂下飾을 매달고 있다. 이 劍菱形에는 주위에 切目を 가하고 있고, 또한 面에 小心葉片을 부가하는 식이다. 세 번째 것은 이 수식의 中核을 이루는 長大한 것으로 먼저 引手狀의 環에 굵은 金線의 상하를 구부러 환과 서로 連繫된 몸체에 金の 針金을 둘러 隋所에 그것을 挺出하고, 소원판식을 착장한 6조를 遞繫하고, 별도로 하나의 花籠形飾을 겹쳐서 큰 板鋒狀의 主飾을 垂下시켜, 접부된 오른쪽 花籠形飾의 三方에 劍菱裝飾의 垂下飾을 매달고 있다.¹⁰⁾

9) 국립진주박물관(편),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동천문화사, 1992, 도판140, p. 143.

10) 梅原末治, 「慶州金鈴塚 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13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1932, pp.86-87.



〈그림 9〉 細環式 3條式 垂飾
日本 古墳時代 熊本縣 船山古墳 出土
-『世界考古學大系』3 日本

古新羅 출토지마상 垂飾(그림 8)은 세환에 3줄기의 장식이 垂下 되어 있다. 하나는 倒置된 표주박형의 장식을 매달고 나머지 둘은 中空球體와 금사슬을 고대로 연결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끝이 긴 心葉形 장식을 수하한 것이다. 세 줄기의 장식이 수하된 것은 드문 양식이다.¹¹⁾

이같은 三條의 多條式垂飾은 당시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日本 古墳時代 熊本縣 船山古墳 出土品(그림 9)을 보면 全長 15cm정도이고 금은제이며 細環을 중심으로 하여 세 개의 긴 줄과 垂飾品을 늘어뜨리고 있다. 방울과 瓔珞등을 달고 있는 3條의 사슬에다가 圓錐形의 先端에 유리옥을 끼운 垂飾 1개와 2개의 細長한 心葉形을 각각 垂下飾으로 달아매고 있어,¹²⁾ 前者의 樣式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¹³⁾

3) 4條式

古新羅 地域 慶州 味鄒王陵 出土 垂飾은 금사슬 꼬아서 작은 심엽형 瓔珞을 단 球形 空玉을 연결한

垂飾이다. 현재 4줄로 되어 있는데 1줄은 길고 다른 3줄은 짧고 끝에는 모두 비취 曲玉을 달았다. 현재 한쪽에는 4개가 있고 다른 쪽에는 3개만 남았는데 긴 줄의 曲玉은 특히 크다.¹⁴⁾

이상의 2-4條式으로 된 細環式 多條式 垂飾은 單條式의 귀걸이 양식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출토품으로는 보아 2條式은 高句麗, 百濟, 古新羅, 加耶 모든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3條式이나 4條式은 古新羅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垂飾은 주로 金鎖로 연결하고 있으며 垂下飾으로 高句麗지역에서는 고추모양 장식, 百濟地域에서는 心葉形, 曲玉類, 草實形, 錐形 등이 사용되었으며, 古新羅에서는 心葉形, 複心葉形, 끝이 긴 心葉形, 竹葉形, 三葉形, 曲玉, 寶冠形, 劍菱形, 표주박형, 梔子形, 球形등이 사용되었으며, 加耶地域에서는 주로 梔子形이 사용되는 등 다양한 垂下飾등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太環式 多條式 垂飾

1) 2條式

古新羅지역 金冠塚 출토 垂飾(그림 10)은 中空의 금제 태환에 中空의 세환을 연결하고 거기에 垂飾을 연결하고 있다. 수식은 2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상하에 작은 心葉形瓔珞을 針金으로 結付한 細金細工의 華籠形式을 통하여 心葉形 수식을 끝에 늘어뜨린 것이다. 다른 하나는 華籠樣의 上方球形部에 8개의 下方笠形部의 끝에 6개의 小瓔珞을 부착하고, 하단에 垂下시킨 심엽형판에는 蛇腹樣의 細帶를 周緣과 中央縱線에 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11)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社, 1975, p.192.

12) 樋口清之·永峯光-, “裝身具”, 〈新版考古學講座〉5, 原史文化下, 東京: 雄山閣, 1974, p.262.

13) 金文字, “古代韓日裝身具比較研究”, 『服飾』第29호, 1996, p.102.

14) 문화재관리국, <http://203.243.126.1/index.pro-frame.html> 〈문화재상세정보〉 金製垂飾.

4개의 심엽형의 小飾을 판의 양측에 부가하고 있다. 이들 兩條의 垂飾은 中實의 소환으로 상부의 환에 매달려 있다.¹⁵⁾

皇吾里 第1號墳 南槨 主槨 출토품은 中空의 金제 태환에 2조를 늘어뜨리고 있는데 1조는 中實의 金제 세환과 소환을 연결하고 이 소환에 아주 작은 小形環을 이어 붙여서 만든 입방체의 中間식과 連繫 金具에 의하여 소형심엽형판 2매를 앞뒤면에 침식한 심엽형판의 垂下飾을 連繫하였으며, 다른 한 조는 中間식을 생략하고 先端이 菱形인 槍狀刀形의 垂下飾으로 되어 있다.

皇吾里 第54號墳 乙塚의 출토품은 中空의 金제 태환에 2개의 中實細環을 연결하고 이 세환에 연결된 2조중 하나는 아주 작은 소형환을 이어 붙여서 만든 입방체의 中間식과 三葉文을 투조한 縱長心葉形의 垂下飾을 連繫하였으며, 다른 1조는 金줄로 逆四角錐形의 수하식을 연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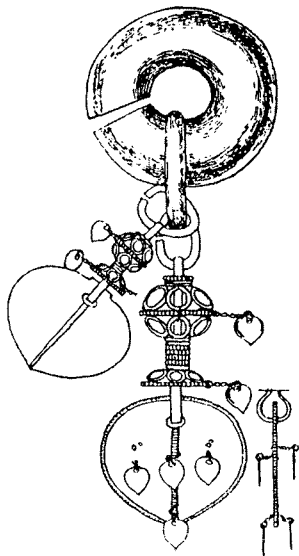
皇南洞 第98號墳 北墳 出土 其1<그림 10>에는 먼저 태환식에 타원형고리를 걸고 그 아래 다시 작은 고리 2개를 연결고리로 하여 두줄의 드리개를 걸었

다. 연결고리 아래에 긴 줄은 펜촉모양의 끝장식이 고, 짧은 줄은 心葉形이다. 긴 줄은 연결고리 지름 0.2cm의 金棒이다. 양끝에 고리를 낸 마디 金具는 0.8cm의 金실 두가닥이며, 中間 장식을 관통하여 끝 장식을 매달았다.

中間 장식은 2段의 透作球體 아래에 半球體로 3段장식으로 되었다. 透作球體는 작은 金고리를 중앙에 垂直短線文이 새겨진 둥근테 위아래에 각각 7개 연결하여 球體를 만들고 반구체는 아래를 생략하였다. 둥근 테를 따라 한 줄의 金실로 각각 심엽형영락 6개씩으로 장식을 내었다.透作球體 상단에는 수직단선문이 새겨진 金고리 3개가 포개져 끼워졌고 球體와 半球體 사이에도 역시 3개씩 끼워졌다. 球體에 이용한 작은 金고리에도 수직 단선문이 전부 새겨진 점이 다른 드리개와 차이가 있다 하겠으며 심엽형영락은 안으로 휘어져 입체감을 주고 있다. 끝 장식은 펜촉모양으로 3개가 달렸는데 안으로 약간씩 휘어지고 子葉은 아주 작게 똑같은 모양의 金판을 앞뒤에 덧붙였다. 끝장식 3줄은 본래 마디 끝에 꿰어 한 개를 달고, 나머지 두 개는 마디 金구에 두가닥의 金줄을 추가로 꼬아 끝장식을 매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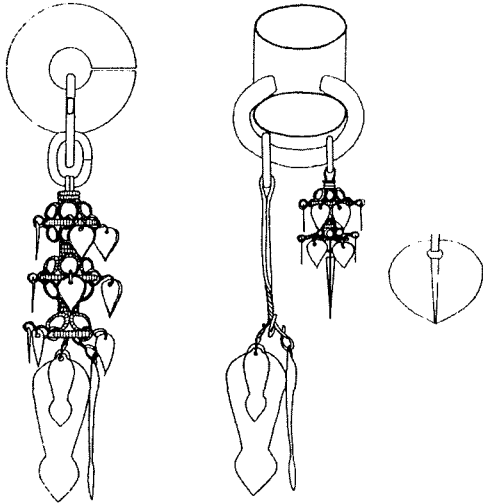
또 하나의 짧은 드리개는 연결고리는 긴 고리 보다 약간 좁고 작은 고리이고 마디 金구는 양끝에 고리가 있고 中間飾은 透作球體와 半球體의 2단이다. 작은 고리 7개를 연결하여 중앙에 수직단선문이 있는 둥근 테 아래위에 붙여 球體를 만들었다. 반구체도 같은 수법이며 짧은 장식은 중앙에 垂直帶를 한줄 덧붙였다. 이 中間식은 긴 줄의 드리개와 같은 수법이며 구체와 반구체 사이에 연결된 작은 고리에 수직 단선문이 있는 점은 같고 심엽형영락이 편평한 金판이고 끝이 좀 짧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同 古墳 出土 其2는 지름 2.5cm 길이 6.8cm로 太鑲의 연결부분은 뚫렸고 이 고리에 金박으로 싼 작은 고리를 걸고 여기에 金봉으로 된 작은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透作球體裝飾과 心葉形 끝장식을 달았



<그림 10> 太環式 2條式 垂飾
古新羅地域 金冠塚 出土
-「慶州金冠塚及其遺寶」

15)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及其遺寶」 『大正13年度古蹟調査特別報告』 第三冊, 1924, pp.92-93.



〈그림 11〉 太環式 2條式 垂飾
古新羅地域 慶州皇南洞 第98號墳 北墳 出土
-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다. 중간 장식은 두줄로 장식되었는데 크기나 모양이 같다. 透作球體는 중앙에 垂直短線文이 새겨진 테를 둥글게 돌려 원을 만들고 그 아래위에 각각 7개씩의 작은 금고리를 연결하여 하나의 透作球體로 만들었고 그 중앙 띠를 따라 금실로 안으로 약간 휘어진 心葉形瓔珞을 달았다. 이 球體 위와 半球體 사이에 작은 고리를 장식하고 끝 장식과 연결고리에 매단 마디 금구는 0.1cm 너비의 금판대의 兩端에 고리를 내어 걸었다. 끝장식은 心葉形金板으로 앞뒷면에 垂直帶를 붙이고 두줄 중에 한 줄의 것은 垂直短線文이 아닌 수평으로 된 短線文이 새겨 있다.

同古墳 出土 其3은 지름 3cm 길이 8.2cm로 太環에 걸린 타원형 가는 고리는 은소재에 金板으로 싼 것인데 일부가 파손되었다. 이 가는 고리에 두줄의 드리개를 달고 있는데 이 중에 약간 긴 쪽은 태환의 연결 부분은 막혔으며 이 고리 아래 심을 다른 소재로 하여 얇은 金板으로 싼 가는 고리를 걸었다. 金棒으로 된 작은 연결고리가 있고 여기에 드리개를 내렸는데 양쪽에 고리가 달린 너비 0.15cm의 金板帶로 마디 金具를 만들고 中間飾은 透作球體와 半球體로 連接하고 끝장식은 心葉形金板으로 장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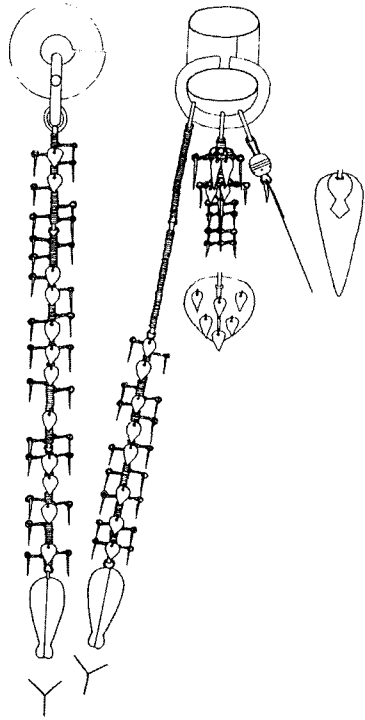
透作球體 장식은 중앙의 垂直短線文이 새겨진 둥근 테 위아래에 각각 작은 금고리 7개씩을 붙여서 球形을 만들고 이 테를 따라 한 줄의 금실로 7개의 심엽형 영락을 달았다. 半球體도 똑같은 수법으로 만들었는데 영락은 6개를 달았다. 球體와 半球體장식 사이에 역시 표면이 垂直短線文이 새겨진 길이 0.3cm 지름 0.3cm의 圓筒形金具를 끼워 붙였다. 심엽형 금판장식은 중앙에 垂直帶를 덧붙이고 앞뒤의 같은 위치에 각각 세 개씩의 心葉形瓔珞을 한 줄의 금실로 꿰어 달았다.

다른 하나도 전체적인 형태는 같으나 心葉形끝장식에 영락장식이 없으며 中間飾의 透作球體와 半球體를 끼운 세 개의 작은 금고리의 표면에 垂直短線文이 깊어 마치 금세공을 한 것처럼 보인다. 같은 수법의 고리를 透作球體위에 두 개를 붙였다. 中間飾과 끝장식의 마디 金具는 금판대가 아닌 금실 두 가닥으로 되었다.

2) 3條式

古新羅 慶州 皇南洞 第98號墳 北墳 出土品〈그림 12〉은 지름 2.8cm 길이 19.2cm로 太의 연결 부분은 막혔으며 이 고리에 다른 소재를 심으로 하여 얇은 金板을 썬 橢圓形의 고리를 걸고 이 고리아래에 금봉으로 된 연결고리에 세줄의 드리개를 매달았다. 세줄의 끝장식은 각각 달라 三葉形, 心葉形, 竹葉形 金板이다. 가장 긴 三葉形은 위아래 고리를 낸 0.1cm 너비의 金板帶 마디 네 개가 연결되었다. 이 마디 金具에 心葉形瓔珞을 서로 어긋나게 9-13개씩 달았다.

끝장식의 金板은 끝이 펜촉형으로 된 三葉形으로 金판을 각각 반으로 접어 서로 붙였다. 가운데에 걸린 드리개는 金棒으로 작은 연결고리 양쪽에 고리를 낸 0.1cm의 金板帶 한 개의 마디 내에 작은 금고리 7개를 붙여 만든 透作球體와 半球體를 中間飾으로 하였다. 球體는 중앙에 垂直短線文의 둥근 테가 둘러지고 이 테를 따라 한 줄의 금실로 半球形보다 약간 긴 心葉形瓔珞을 6개 달았다. 半球體도 같은 수법이다. 구체와 반구체 사이에는 작은 원통 金具



〈그림 12〉 太環式 3條式 垂飾
古新羅地域 慶州 皇南洞 第98號墳 北墳 出土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를 끼워 고정시켰고 球形위에도 圓筒金具를 씌워 그 속에 마디 金具가 관통하여 끝장식 金板과 연결되었다. 심엽형 金판은 중앙에 垂直帶 金구를 덧붙였고, 또한 앞 뒤 양면에 심엽형 영락을 두줄의 金실로 꿰어 장식하였다.

세 번째 竹葉形의 끝장식을 단 드리개는 金봉으로 만든 작은 연결고리 아래 球形中間飾을 걸었는데 이 장식은 半球形金板 두 개를 아래위로 결합하여 球形으로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垂直短線文이 있는 테를 이용하여 결합한 것 같다. 이 球形 金具 아래 위 표면에는 세 개씩의 마름모꼴의 嵌石用 突起가 있다. 연결고리와 끝 장식을 단 마디 金具는 0.15cm 金板帶로 역시 위아래 고리를 냈다. 끝 장식의 竹葉形은 길이가 3.5cm 달하는 긴 金板이며 앞뒤에는 끝이 펜촉 모양을 한 길이 1.3cm의 짧은 子葉

을 한 개씩 달았다.¹⁶⁾

이같은 2, 3條式의 太環式 多條式 垂飾은 古新羅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垂下飾으로는 複心葉形, 槍狀刀形, 逆四角錐形, 펜촉모양, 三葉形, 竹葉形 장식을 매달고 있다

III. 結 論

이상으로 三國時代 多條式 垂飾의 樣式을 세분하여 細環式과 太環式으로 나누고, 細環式은 다시 2條式, 3條式, 4條式으로, 太環式은 2條式, 3條式으로 모두 5가지로 樣式 分類를 하여 그 각각의 形態 및 特徵을 살펴보았다.

多條式 垂飾은 주로 귀걸이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나 高句麗출토시의 출토위치나 크기 등으로 보아 관모나 요패류의 장식으로도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高句麗출토예로 보아서 2條式으로 된 細環式 垂飾은 高句麗, 百濟, 古新羅, 加耶 모든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고, 3, 4條式의 細環式 垂飾 및 2, 3條式의 太環式 垂飾은 古新羅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특이성인지 아니면 보다 간단한 형태의 2條式 垂飾 類에서 시작하여, 금은 세공 기술이 발달한 古新羅 지역에서만 보다 다양한 형태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細環式 多條式 垂飾은 單條式의 귀걸이 양식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垂飾은 주로 金鎖로 연결하고 있었다. 垂下飾으로 高句麗地域에서는 고추모양 장식, 百濟地域에서는 心葉形, 曲玉類, 草實形, 錐形 등이 사용되었으며, 古新羅地域에서는 心葉形, 複心葉形, 끝이 긴 心葉形, 竹葉形, 三葉形, 曲玉, 寶冠形, 劍菱形, 표주박형, 梔子形, 球形 등, 加耶地域에서는 梔子形의 다양한 垂下飾등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환식 다조식 수식들은 당시 일본으로 傳受되어

16)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p.80-87.

日本 多條式 垂飾의 源流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古新羅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太環式 多條式 垂飾은 태환에 작은 세환을 연결하고 그 밑에 垂下飾을 달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垂下飾으로는 複心葉形, 槍狀刀形, 逆四角錐形, 펜촉모양, 三葉形, 竹葉形 장식을 매달고 있다.

이상으로 多條式 垂飾의 樣式을 고찰하였는데 지금까지의 古墳 出土品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라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古墳出土品이 나오면 보충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參考文獻

- 1) 국립경주박물관(편), 『국립경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6.
- 2) 국립진주박물관(편),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2.
- 3) 金基雄, “裝身具”, 『日本文化의 源流로서의 比較 韓國文化』, 東北亞細亞研究會(編), 서울: 三省出版社, 1981.
- 4) 金文子, “古代 韓日 裝身具 比較 研究” 『服飾』, 第 29號, 1996.
- 5) 金種徹, “가야의 고분과 문물”,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2.
- 6) 梅原末治, 「慶州金鈴塚 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13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2.
- 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皇南大塚(北墳)發掘 調査報告書』, 1985.
- 8)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1973.
- 9) _____, 『天馬塚發掘調査報告』, 1974.
- 10) 문화재관리국, <http://203.243.126.1/index.pro-frame.html>
- 11) 濱田耕作, 『慶尙北道慶尙南道古蹟調査報告』 『大正7年度古蹟調査報告』, 1912.
- 12)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和其遺寶」 『大正11年度古蹟調査特別報告』 第三冊, 1924.
- 13) 『世界考古學大系』 3 日本, 東京: 平凡社, 1959.
- 14)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 研究』,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 15) 伊藤秋男, “耳飾の型式學的研究に基づく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試案”, 『朝鮮學報』, 제 64, 天理大學 朝鮮學會, 1972.
- 16)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 17) 樋口清之·永峯光一, “裝身具”, 『新版考古學講座』 5, 原史文化下, 東京: 雄山閣, 1974.
- 18) 최무장, 『고구려고고학II』 서울: 민음사, 1995.
- 19)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 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公社, 1975.
- 20) 穴澤和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 第60卷 第4号, 東京: 日本考古學會, 1975.